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도자료	힘내라 대한민국

2020년 9월 10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9.9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0. 9. 9(수)	담당부서	자원안보정책과
담당과장	김선기 과장(044-203-5240)	담 당 자	노주현 사무관(044-203-5251)

제11회 한-인니 에너지 토론회 화상회의 개최

- 전기차 기반시설 등 신에너지산업 인니 진출 기회 확대 -
- 자원공기업 간 협력, 기술교류 등 자원개발 협력 강화 -
- 광해관리, 에너지 안전관리, 인적교류 등 협력 기반 확충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와 **9월 9일(수) 제11회 한-인니 에너지 토론회**를 개최하였다.

○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, **인니측은 에너지광물자원부 유도 드위난다 프리아디**(Yudo Dwinanda Priaadi) **장관 수석보좌관이 수석대표로 참석**하였으며,

○ 코로나19 상황에서도 **양국 간 지속적인 에너지·자원 분야의 협력 증진을 위해 화상회의로 진행**하였다.

□ 인니는 **1979년 우리나라가 최초로 정부간 자원협력위원회를 설치**한 국가로서, 양국은 **오랜 기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**해 왔으며,

○ **2007년부터 에너지 토론회로 확대 개편**하여 에너지·자원 분야의 다양한 정책 교류 및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**공식 통로로 활용**해 오고 있다.

□ 이번 제11차 토론회는 '**전력·신재생에너지**(세션 1)', '**석유·가스**(세션 2), '**상호협력**(세션 3)' 등 **3개의 분과로 구성**되었다.

○ 분과 1은 '**전기차 충전기 판매서비스 진출**((주)이카플러그)', '**오프/마이크로그리드(Off/Micro-Grid)에 적합한 파력발전 사업**((주)인진)', '2020 인니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력공급사업계획(RUPTL)(인니 전력공사)' 등을 발표하여,

- 이 분과를 통해 **신재생·신에너지 관련 인니측 관계 기관과**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등 **우리기업의 인니 진출 기회를 확대**하는 계기가 되었다.

○ 분과 2는 '**탐사유망지역 공동연구 및 신규사업 발굴**(한국석유공사)', 인니측의 **2020년 석유·가스 광구 분양 계획**에 대한 발표와 함께 **국영석유공사(Pertamina) 및 국영가스공사(PGN)와의 협력 기회**를 모색하는 한편,

- '**육상 중·소규모 천부가스전 기술개발**(한국지질자원연구원)', '**소형 액화천연가스(LNG) 플랜트 분야 기술교류**(한국가스공사)' 등 자원개발 기술에 대한 협력방안이 논의되어 한-인니 간 **자원개발 분야 협력을 강화**할 수 있게 되었다.

○ 분과 3은 '**광해관리 협력 강화**(한국광해관리공단)', '**에너지안전관리체계 개선 지원**(한국전기안전공사)', '**에너지 공동연구 협력과제 발굴**(에너지기술평가원)', '**국제협력교육과정을 통한 협력 강화**(서울대)' 등을 논의하여,

- **광해관리, 에너지안전관리, 에너지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, 인적개발** 등 인니측 수요가 높은 분야의 사업을 중심으로 **한-인니 간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**를 마련하였다.

□ 이번 토론회에서 **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**은 이 토론회가 "**코로나19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에너지·자원 협력을 심화시킬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통로가 되길 기대**"한다고 밝히면서,

○ 한국정부는 **양국간 전력과 신재생, 석유·가스, 상호협력** 등 에너지·자원 전반에서 **기업간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**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.

□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고 양국 간 합의된 사항은 연내에 개최될 한-인니 경제협력위원회 본회의에서 그 결실을 맺게 되어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노주현 사무관(044-203-525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